



■ 꽃자갈과 오름을 테마로 만든 JDC 문화공간 '낭' 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그림책 읽어주기·액션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# 책 읽는 쉼터... 온가족 놀이·문화공간



제주 핫플레이스 (53) 어린이도서관

주말, 아이와의 추억쌓기를 위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린이도서관을 추천한다. 넓은 정원 마당과 키즈카페 분위기로 책 읽는 쉼터이자 놀이공간으로 조성돼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는 곳,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JDC 문화공간 '낭'이다.

### #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

제주시 연오로에 위치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'지방 청와대'로 불리며 과거 제주를 방문한 대통령의 숙소 또는 제주도지사 관사로 이용되던 지방공관을 탈바꿈해 만든 어린이도서관이다.

2017년 10월 문을 연 도서관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소통·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러졌다. 건물안에는 꿈자람채방, 대통령행정박물전시실, 그림책방, 세미나실, 프로그램실, 모둠활동실, 야외에는 북카페와 야외공연장, 숲속놀이터를 갖추고 있다.

올해에만 8월 기준 26만여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. 도서관은 올 연말까지 31만여명이

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만 3만2000여권. 어린이도서관 답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가 대부분이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마음껏 골라보는 재미도 크다.

무엇보다 도서관의 핫 아이템은 다양한 문화프

###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'인기몰이' 키즈카페 분위기의 JDC 문화공간 '낭' 가족과 함께 독서 즐기는 휴식 공간

로그램이다. 맞춤형,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소통, 자연 체험학습, 제주의 자연·역사·문화 등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등 올해만 총 9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.

더욱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 마당과 숲속놀이터가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

장소로도 그만이다.

박수은(제주시 이도2동)씨는 "책 종류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, 다른 도서관에 비해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아이와 오래 놀 수 있어 좋다"며 도서관 이용에 만족감을 표했다.

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, 매주 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.

### #JDC 문화공간 '낭'
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세미양빌딩에 위치한 JDC 문화공간 '낭'은 제주의 꽃자갈과 오름을 테마로 만들었다. '낭'은 제주방언으로 '나무'를 뜻한다.

'낭'은 가족과 함께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가족 책방과 제주 자연을 모티브로 한 휴게 쉼터가 마련돼 있는데, 키즈카페 분위기로 조성돼 영유아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'핫 플레이스'로 꼽힌다. 2018년 5월 문을 연 이후 입소문을 타고 도내·외에서 찾아들며 현재까지 누적방문객은 5만 5000여명이다.

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·화는 쉼다.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, 점심시간(11시50분~12시50분)은 휴게시간이다.

오른지기자 ejoh@ihalla.com

## 제주바다와 문학 (21) 최현식 소설 '세화리에서'



제주 바닷가 마을의 잠수굿 장면. 소설 '세화리에서'는 함경도까지 물질을 나갔던 제주 해녀를 우연히 만난 실랑민 주인공들의 눈물겨운 밀항기다.

### "세화리 바닷가서 통일 봤지앵요?"

영등굿 치르는 마을서 만난 함경도까지 물질 갔던 해녀 백석도 제주·함남 잇는 역할

그는 함경남도 흥원에서 태어났다. 흥원·함흥·북청 등 함남에서 22년을 보냈고 서울에서 8년, 군복무로 휴전선에서 5년을 지냈다. 그로부터 남은 생 50여년을 아내의 고향인 제주에서 머물다 떠났다.

소설가 최현식(1924~2010). 함경도 방언을 썼던 그는 성년 이후 제주에 왔다. 그의 의식과 정서에는 함경도적인 것과 제주도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고, 입도 1세인 그가 그려낸 소설엔 반(半)제주인, 신(新)제주인의 단면(김영화)이 읽힌다. 제주에 살면서도 제주인이 아닌, 이 섬의 기후와 풍토, 제주민의 기질 등을 거리를 두고 바라봤던 제주인이다.

이해 달리말해 그가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. 그의 소설에 방향이나 실황의 슬픔이 진하게 배어나는 이유다. 통일에 대한 꿈이 멀어질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는지 모른다.

1994년 나온 소설집 '먼 산'에 실린 '세화리(細花里)에서'(1988)는 타지로 물질을 떠났던 제주 해녀를 매개로 뜻밖에도 이북의 지명이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는 작품이다. 소설 속 세화리는 제주도 구좌읍이 아니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동명리의 마을을 일컫는다.

소설은 제주에 사는 '나'가 다른

지방에서 온 곳 연구자 P교수와 동행해 음력 2월 세화리 영등굿을 보러 가면서 시작된다. 두 사람은 함경남도 한 마을에서 자란 선후배 사이이다. 고향을 안내해준 시인 H까지 합류해 세 사람이 해녀들이 운영하는 마을 포구 노점에 자리잡아 이야기를 나누다 P교수의 함경도 방언이 튀어나온다. 해녀 노점엔 마침 흥원까지 물질나갔던 아내가 있었다. 그 아낙은 흥원 남당리 이웃 동네인 서흥리에서 3년을 살며 여를 물질을 했던 이였다.

"서흥리! 얼마만에 들어 보는 이름인가. 천도(穿島)와 10리 백사장의 바닷가... 그 마을 이름을 세화리 해변의 한 아낙 입에서 듣게 되다니..."

이 기막힌 만남에 '나'와 P교수는 금세 취기가 오른다. P교수가 말한다. "통일요? 우리, 오늘 세화리 바닷가서 통일 봤지앵요?"

제주와 흥원을 잇는 또 다른 모티브는 백석이다. P교수가 '나'에게 선물한 백석 시선집에 담긴 시 '삼호(三湖)'와 수필 '동해'가 이 소설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놓인다.

P교수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'나'는 1938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백석의 '동해'가 적힌 대목을 펴든다. "제주 배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 배 나면 서운하지. 아이들은 제주 배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나귀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. 이번 칠월 그대한테로 가신 제주 배에 올라 제주 색시하고 살렵네."

진선회기자 sunny@ihalla.com

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**고객선호도 1위!**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

## 태양광 발전

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

- ▷ 과수원, 밭, 유류부지 소유자
- ▷ 옥상/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
- ▷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
- ▷ 장기간 "임대료 수입" 희망자

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

##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! 태양광 발전소



30년 동안 일정하고 "안정적인 소득"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"임대료 수입"

##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"뚝" 일반용 태양광



"일반용" 또는 "산업용"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% 할인혜택 적용

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

제주솔라에너지

742-5775

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.jejuSolar.co.kr